

2017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교과 전형 면접평가
계열별 예상문제



2016. 8. 25(목)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입학홍보처

【수시모집 학생부교과 전형】

■ 지원자격

2015년 2월 이후 국내 소재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며, 5개 학기 이상 국내 고등학교 성적이 모두 있는 자(이수학기 모두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기재되어야 함)

※ 특성화고등학교 이수자, 예·체능고등학교 이수자, 일반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의 특성화(직업) 과정 이수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합니다.

■ 모집인원 : 280명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선발단계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전형방법
	교과		
1단계	100%	-	학생부 성적(국, 수, 영, 사, 과)으로 모집인원의 일정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발함
2단계	70%	30%	면접 성적과 교과 성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기준 : 적용하지 않음 (단, 의예과는 적용함)

■ 면접평가 일정

항목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의예과
면접대상자발표	9/30(금), 17:00 이후		10/7(금), 17:00 이후	
면접평가	10/8(토)		10/15(토)	

■ 면접평가 제시문(문제)

1. 인성가치관(모든 계열 공통) 평가(입학홍보처 홈페이지 기출문제 참조)
2. 계열별(인문/사회/자연/의예) 역량 평가
 - 가. 인문계열 : 문장 독해력 및 이해력 평가
 - 나. 사회계열 : 사회 이슈에 대한 이해 및 통계자료 분석력 평가
 - 다. 자연계열 및 의예과 : 확률과 통계 문제를 통해 논리적 사고력 평가

※ 아래 제시된 2017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교과 전형 면접평가 계열별 예상문제는 문제 유형 파악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고교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됩니다.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생부교과 전형 면접평가 예상문제[인문계열]

<예시지문1>

예술 작품의 필요충분조건들은 무엇인가?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술 작품이 갖는 속성소(屬性素, property) 혹은 특질들은 무엇인가? 한 사물이나 사실의 속성소는 반드시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지각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실재적(實在的)인 것일 수도 있고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약정적(約定的)인 것일 수도 있다. 물의 속성소는 산소와 수소들이며 물은 이 두 가지 속성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산소나 수소는 분명히 우리의 자의적인 결정과는 독립되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연세대생의 속성소나 기혼자의 속성소는 단순히 직접적인 지각을 통해 밝혀질 수 있는 실재하는 것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약정적인 성질을 지닌 속성소를 지닌다. 여기서 약정이란 사회적 제도를 의미한다. 연세대생과 비연세대생, 기혼자와 미혼자는 오로지 사회적 제도로서의 약정에 의해서 분류되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소의 구별을 인정하고 어떤 사물 현상을 정의할 때, 실재적인 속성소를 따를지 아니면 약정적인 속성소를 중심으로 결정할지가 매우 중요하다. 물의 속성소를 약정적인 차원에서 찾는 일이 헛된 노력인 것처럼 미혼자의 속성소를 실재적인 측면에서 가려내려는 것은 근본적인 착각이다.

그렇다면 예술 작품의 속성소는 실재적인 것인가 아니면 약정적인 것인가? 만약 베토벤의 교향곡, 피카소의 그림,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모두를 예술작품이라 한다면, 이 모두가 소유하고 있다고 전제되는 속성소는 그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찾을 수 있는 실재적인 것인가, 아니면 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약정적인 것인가? 예술 작품의 속성소를 전자의 종류로 전제할 때 우리는 예술작품의 실재적 정의를 시도하게 되고, 그 반대의 것으로 전제할 때 예술 작품의 약정적 정의를 제안하게 된다.

<예시지문2>

한 평범한 회사원이 퇴근길에 가게에 들러 캔콜라 한 박스를 샀다. 목이 말랐던 그는 두어 개를 따서 마시면서 걸었다. 그는 우연히 '전위예술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화랑을 지나게 되었고 호기심에 이끌려 전시장으로 들어갔다. 여기저기 구경하던 그 회사원은 들고 있던 캔콜라 박스가 무거워서 한 쪽 구석에다 내려놓고 나머지 작품들을 구경했다. 구경을 마친 그는 전시장을 나와 집 쪽으로 한참을 걸어다가 콜라 박스를 전시장에 두고 왔음을 깨달았다. 그는 서둘러 다시 전시장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자신이 콜라박스를 내려 놓았던 그 구석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대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콜라박스를 들여다 보면서 찬탄을 늘어놓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유명한 미술평론가와 화가들이었다.

'이 작품은 현대 도시인의 일상을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지런히 놓인 캔콜라 사이에 이미 다 마셔버리고 어지럽게 놓인 빈 강통들은 일탈을 꿈꾸는 도시민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박스째로 포장된 캔콜라는 대중 소비사회의 상징이에요'

'근래에 보기 드문 뛰어난 작품이군요'

그 회사원은 어리둥절해졌다. 그리고 차마 그들 앞에서 이 박스는 자기가 조금 전 가게에서

산 것이며, 전시장을 구경하다가 무거워서 내려놓은 것임을 밝힐 수가 없었다. 그는 조용히 전시장을 빠져 나와서 집을 향해 걸었다. 걸으면서 그는 내내 '예술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가져 오지 못한 콜라가 아깝다는 생각이 물론 그를 더 사로잡고 있었지만...

<예시지문3>

우리는 수많은 예술 작품을 대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무엇이 예술 작품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술 작품의 카테고리는 무척 모호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일관된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가령, 뒤샹의 유명한 작품 「샘물」은 흔히 볼 수 있는 변기를 전시장에 갖다 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피카소의 조각품 「소의 머리」는 그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의 안장과 손잡이를 벽에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이다. 이상의 연작시 「오감도」는 연재 당시 독자들에게 '그것도 시냐'라는 빗발친 비판 때문에 중도하차했지만, 오늘날 유명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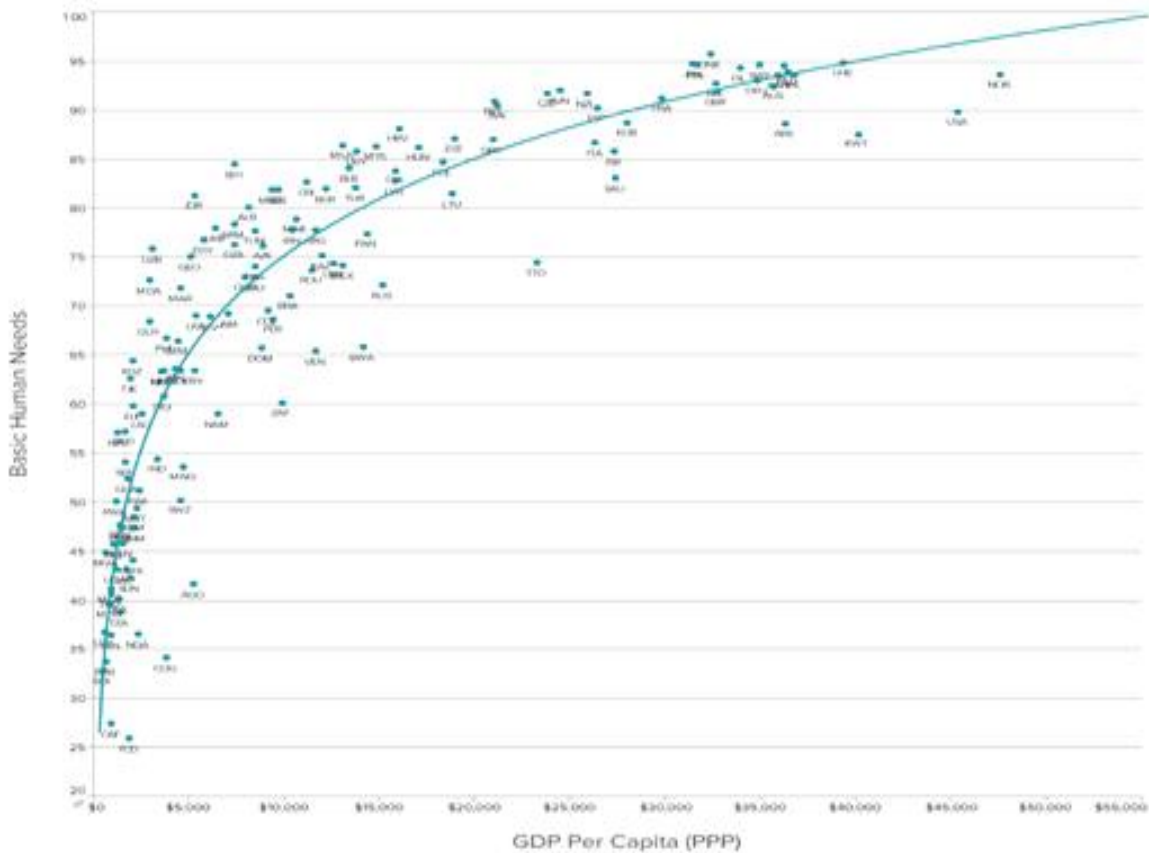
특정한 시대에 전혀 예술로 취급받지 못하던 것이 다음 세대에 엄연히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 일이 허다한 것을 보면 예술 작품의 정의가 가변적이며 개방적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가령, 현대예술의 한 부류인 '행위예술'은 그것이 예술 작품임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미친 짓거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경우에 어떤 이상한 '짓거리'가 예술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은 그것이 정신병동에서 일어난 일인가, 전시장에서 일어난 일인가의 차이, 그리고 미술가와 비평가들이 그것을 예술 행위로 인정해주는가 아닌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예술 작품에 대한 정의는 시대마다 또는 나라와 사회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다. 물론 '독창성'이라든가, '대상에 대한 감성적 표현'과 같은 조건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예술 작품을 규정하는 필요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예술 작품을 규정하는 조건은 오히려 한 사회나 시대의 제도와 관습에 근거하며, 그 제도와 관습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 1】 자신이 생각하는 예술작품의 조건을 한 가지 이상 말하고, 그 조건이 예술작품의 기준이 되는 이유를 말해 보시오.

【문제 2】. 예술의 역사에서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거나, 그와 반대로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았으나 그 뒤에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예를 들고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생부교과 전형 면접평가 예상문제[사회계열]



【문제】 위의 그래프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한 재화나 서비스 (Basic Human Needs)의 공급정도와 물가수준을 고려한 1인당 국민소득 (GDP Per Capita (PPP))의 조합을 국가별로 표시한 것이다. 그래프에 나타난 실선은 X 축 변수와 Y 축 변수 사이의 평균적인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Basic Human Needs 에는 교육, 건강 등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과 함께 다른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1인당 국민소득도 포함되어 있다.

(가) 위 그래프를 설명해 보시오.

(나)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유추해 보시오.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생부교과 전형 면접평가 예상문제[자연계열]

【문제】주머니 안에는 빨간 공 1개, 노란 공 2개가 들어있다. 각 공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식별할 수 없어 각 공이 뽑힐 확률은 $1/3$ 로 같다고 가정하자. 이제 A, B, C 세 사람이 공을 순차적으로 한 번씩 뽑는데 뽑힌 공은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는다. 이 때 빨간 공을 뽑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데, 이렇게 시행하기를 반복하여 한 사람이 최초로 세 번 승리하면 최종 우승하고 경기가 끝나게 된다.

(가) 첫 회 시행에서 A 는 제일 먼저 뽑겠다고 하였다. 먼저 뽑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고 설명하시오.

(나) 매 회 시행에서 A 가 항상 제일 먼저 뽑는다고 했을 때, 이 경기가 꼭 6회 시행만에 A 의 우승으로 끝 날 확률을 구하시오.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생부교과 전형 면접평가 예상문제[의예과]

【문제 1】주머니 안에는 빨간 공 1개, 노란 공 2개가 들어있다. 각 공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식별할 수 없어 각 공이 뽑힐 확률은 $1/3$ 로 같다고 가정하자. 이제 A, B, C 세 사람이 공을 순차적으로 한 번씩 뽑는데 뽑힌 공은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는다. 이 때 빨간 공을 뽑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데, 이렇게 시행하기를 반복하여 한 사람이 최초로 세 번 승리하면 최종 우승하고 경기가 끝나게 된다.

(가) 첫 회 시행에서 A 는 제일 먼저 뽑겠다고 하였다. 먼저 뽑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고 설명하시오.

(나) 매 회 시행에서 A 가 항상 제일 먼저 뽑는다고 했을 때, 이 경기가 꼭 6회 시행만에 A 의 우승으로 끝날 확률을 구하시오.

【문제 2】한 위성 사진을 A, B 의 두 영역으로 분할하였다. 이 때 A 영역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점들의 밝기점수는 평균(m) 4점, 표준편차(σ) 2점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B 영역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점의 밝기점수는 평균 7점, 표준편차 3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선택된 점의 최종 판독점수(X)는 밝기점수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기로 한다. A 와 B 영역의 면적 비율은 각각 $p, q(=1-p)$ 라 놓자. 선택된 점의 최종판독점수가 5점 이하면 A 영역, 6점 이상이면 B 영역의 점으로 결론지으려한다. 한 점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역을 판단할 때, 다른 영역에서 나왔다고 잘못 판단할 확률을 구하시오.

문제의 풀이를 위하여 다음의 표준정규분포표($Z = \frac{(X-m)}{\sigma} \sim N(0,1)$)를 이용하시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P(Z \geq 3) = 0$ 으로 간주한다.

z	$P(0 \leq Z \leq z)$
0.25	0.10
0.50	0.19
0.75	0.27
1.0	0.34
1.25	0.39
1.5	0.43
1.75	0.46
2.0	0.47
2.25	0.48
2.5	0.49
3.0	0.50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GLOBAL
원주캠퍼스 LEADERSHIP
CAMPUS

E-mail : yonseiwonju@yonsei.ac.kr

홈페이지 : <http://admission.yonsei.ac.kr>

입학상담 : 전화. 033 - 760 - 2828 / 팩스. 033 - 760 - 2829

